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143-184
<https://doi.org/10.29212/mh.2021..121.1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고대 중장기병 전술 연구

양성민*

1. 머리말
2. 중장기병의 정의
3. 한국 고대의 말과 중장기병
4. 한국 고대 중장기병의 대보병 전술
5. 중장기병의 대기병 전술과 작전
6. 맺음말

1. 머리말

중장기병(重裝騎兵)은 무겁게 갖춘 기병을 뜻한다. 이들은 창이나 검, 도(刀)와 같은 무기들을 사용, 적진으로 돌격하거나 투창 돌격 전술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는 병종으로 여겨진다¹⁾.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발굴조사단 연구원

1) 송영대, 2018, 「高句麗 南征 이후 新羅·加羅의 전술 변화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No.3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한국 고대 기병 및 중장기병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장비와 관련된 고고학 연구, 그리고 기병의 전술 및 전략 전반을 다룬 연구²⁾로 구분된다. 전자엔 마갑³⁾, 기병의 무장형태⁴⁾, 유물 조합 양상을 바탕으로 한 군사체제의 변화 속에서의 중장기병⁵⁾, 유물 조합 및 사료를 통해 본 병종의 분류와 전술적 의의⁶⁾, 고분벽화 및 고고자료를 이용, 고구려 중장기병을 전반적으로 살핀 연구⁷⁾ 등이 속한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중장기병, 그리고 기병이 전쟁 및 전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행렬도상의 병종배치를 근거로 중장기병 전술을 분석하기도 하며⁸⁾, 고고자료 및 벽화고분에 근거해 중장기병이 밀집대형을 구성, 적 정면에 충돌하거나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이야기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또 적 정면에 충돌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⁹⁾. 또한 기병의 형식을 설정, 전술을 언급하는 연구에서도 각각의 전술에 관한 정의 및 방식은 다루고 있지 않다¹⁰⁾. 즉 기존 연구들은 한국 고대 중장기병 전술(戰術), 즉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유추하기 힘든 고고자료 그리고 극소

2) 이홍두, 2020, 『한국 기마전 연구』, 혜안.

3) 장경숙, 2009, 「말갑옷(馬甲) 연구시론」, 『學藝誌』 第16輯, 육군박물관.

김성호, 2019, 「삼국시대 마갑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 장경숙, 2003,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갑주」, 『慶州文化研究』, Vol.6,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5) 이현주, 2005, 「三韓·三國時代 釜山地域 軍事體制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 류창환, 2010, 「三國時代騎兵과 騎兵戰術」, 『한국고고학보』 제76집, 한국고고학회.

7) 정동민, 2007,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중장기병의 변화와 운용형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 정동민, 2007, 앞의 글, pp.49~53

9) 李蘭映, 金斗哲,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p.228

정동민, 2008, 「高句麗 重裝騎兵의 特徵과 運用形態의 變化 -古墳壁畫資料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2. p.388, 389

10) 류창환, 2010, 앞의 글.

수만 남아있는 관련 문헌사료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서술만을 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 고대 중장기병이 전투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했으며, 마갑이라는 무거운 장비를 추가하면서까지 중장기병이 등장해야 했던 이유, 중장기병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는 방법, 더 나아가 기병 전술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서술 속에서 중장기병 개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자신의 전공을 입증했는지 등을 파악, 이를 기반으로 한국 고대 중장기병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고고, 회화자료, 서양 고대~근대의 전쟁을 분석한 근현대 연구들, 송나라, 명나라 시기의 병법서, 조선의 병법서와 같은 후대의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비교사적 검토를 실시, 이를 토대로 한국 고대 중장기병의 전술을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중장기병의 정의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중장기병을 말까지 갑주를 갖춘 기병으로 정의한다. 이와 달리 서양 학계에선 마갑을 갖추지 않은 중장기병과 마갑을 갖춘 중장기병을 구분하며, 양자의 차이 및 용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¹¹⁾. 국내에서도 고구려 고분벽화를 포함, 다양한 고고자료 및 문헌사료들을 이용해 4개의 기병형식을 구분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해당 연구에선 고대 기병을 활을 쏘는 기병,

11) M. Mielczarek, 1993, 『*Cataphracti and Clibanarii, Studies on the Heavy Armoured Cavalry of the Ancient World*』, Oficyna Naukowa MS.

R. D'amato, A. Negin, 2018, 『*Roman Heavy Cavalry (1): Cataphractarii & Clibanarii, 1st Century BC-5th Century AD*』, Osprey Publishing. p.21, 22

장창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기병, 갑주를 갖춘 기병, 그리고 마갑까지 모두 갖춘 기병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기병은 흔히 중기병(Heavy Cavalry)과 경기병(Light Cavalry)으로 구분되며,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다. 그러나 후기 고대 로마¹³⁾, 중세에도 두 기병이 각자의 역할을 근거로 구분되는 경향 자체는 확인된다. 또한 『삼국사기』에도 경기(輕騎)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 고대에도 양자는 구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중기병과 경기병의 구분은 마갑의 유무가 아닌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근거한다. 또한 마갑 착용 여부는 기병이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즉 마갑을 착용해서 중기병인 것이 아니라, 중기병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갑을 착용한다. 유럽의 경우 철제 마갑이 완전히 사라진 중세 이후에도 중기병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전과 거의 같다¹⁴⁾. 다만 서양 고대, 중세, 한국 고대와 같이 마갑을 포함한 갑주들을 갖추 수 있고 이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계층이 사회 내에서 한정되는 경우엔 특정 집단이 중기병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¹⁵⁾. 이럴 땐 갑주의 착용 여부, 즉 해당 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기병이 될 수 있는가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갑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기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본고에선 중기병 안에 말과 병사 모두 갑

12) 류창환, 2010, 앞의 글.

13) 후기 고대 로마의 군정, 행정 문서인 『노티티아 디그니타툼(Notitia Dignitatum)』에는 중무장 기병인 카타프락타리(Cataphractarii), 클리바나리(Clibanarii)와 더불어 경기병에 가까운 마궁수인 에퀴테스 사기타리(Equites sagittarii)가 명시되어 있다.

14) J. Tincey, 2002, 『*Ironsides: English Cavalry 1588-1688*』, Osprey Publishing.

15) 영남지역 각 고분군, 대표적으로 부산 북천동 고분군, 함천 옥전 고분군, 함안 도항리 고분군, 경주 쪽샘지구 등에서 확인되는 갑주 및 마갑이 부장된 고분들은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의 무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를 갖춘 경우, 말은 갑주를 갖추지 않고 기병만 갑주를 갖춘 경우 모두를 포함시키겠다¹⁶⁾. 다만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기병 대신 중장기병이라는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중장기병은 적진에 대한 충격 및 우회, 섬멸 전술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수행하는 기병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반대로 경기병은 전투에서 적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최대한 회피, 적에 대한 산병전(散兵戰, Skirmishing) 및 기동 방해, 정찰과 같은 간접적 접촉을 수행하는 기병으로 정의된다.

3. 한국 고대의 말과 중장기병

가.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의 말

말은 체고가 높을수록 무게도 무거워진다. 이를 근거로 현대에는 말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다¹⁷⁾. 한국 고대 말은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조랑말과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⁸⁾. 경주 월성에서 출토된 말은 체고가 120~136cm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크기의 말은 대략 250~350kg 정도의 무게를 가진다. 현대의 경주말인 서러브레드(Thoroughbred)의 무게가 약 550kg인 것을 감안하면, 고고학 자료를 통해 알 수 있

16) 마갑 중장기병의 경우 전술적 활용의 폭이 좁은 편이기에 서양에서는 마갑 기병을 초중장기병(Super Heavy Cavalry, Extra-Heavy Cavalry)으로, 반대는 중기병(Heavy Cavalry)로 구분하기도 한다.

17) B. Mckiernan, 2007, 『*Estimating a horse's weight*』 『*Primefacts*』 494,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B. Cumming, 2009, 『*Estimating a horse's condition and weight*』, 『*Primefacts*』 928,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1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말, 갑옷을 입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36~38

는 한국 고대의 말은 작고 왜소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나. 말과 중장기병

대규모 기병을 운용할 수 있었던 근대엔 기병에게 각자 임무에 맞는 크기의 말들을 지급했다¹⁹⁾. 그 이유는 더 큰 말이 더 덩치가 큰 사람과 더 많은 장비를 등에 실은 채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몸무게의 약 20%까지 싣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²⁰⁾. 현대 일부 국가에서는 10%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대형 종이 존재하지 않았던 고, 중세에는 오늘날의 경형마 또는 대형 조랑말에 속하는 비교적 작은 말들이 전투에 사용되었다. 또한, 과거의 기병들은 무거운 장비를 소지한 채 전투를 수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움직이면 말에게 무리를 주는 30%까지도 허용되었다²¹⁾.

월성에서 확인된 말의 무게는 약 250~350kg 정도다. 이때 한계 선인 30%의 무게를 적용하면 약 75~105kg이 된다. 마감 중장기병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장구들은 그 종류도 많으며 철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다수다. 각각의 장구들이 완전하게 보존된 사례가 없기에 고대 한반도의 말이 전투상황에서 감당해야 했던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대략적으로라도 살펴보

19) R. B. Bruce et al, 2008 『*Fighting Techniques of the Napoleonic Age 1792-1815: Equipment, Combat Skills, and Tactics*』, Thomas Dunne Books. pp.87~90

20) B. S. Bachrach 2002, 『*CABALLUS ET CABALLARIUS in Medieval Warfare*』, 『*Warfare and Military Organization in Pre-Crusade Europe*』, Routledge. p.177

21) J. Gassmann 2018, 『*Combat Training for Horse and Rider in the Early Middle Ages*』, 『*Acta Periodica Duellatorum*』 Vol. 6, Sciendo. p.72

면, 사람 무게 약 60kg, 사람이 입는 갑주 20~30kg, 마갑 30~40kg, 마구류 10~20kg²²⁾, 그리고 기타 각종 무기류, 장신구들을 합쳐서 약 5~10kg 정도 된다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마갑 중장기병의 말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약 120~150kg 정도다. 이는 가장 가벼운 말은 몸무게의 50% 이상, 무거운 말은 약 35~42% 정도에 해당되는 무게다. 만일 마갑을 입히지 않는다면 전자는 약 36~44%, 후자는 25%~31%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이 경우 큰 조랑말은 말에게 무리는 가겠지만, 일반 중장기병의 전투마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경주 월성에서 확인된 조랑말들은 마갑 중장기병의 말로 활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월성에서 확인된 크기가 작은 조랑말들은 전투용이 아닌 일상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로 회전(會戰) 상황에서 마갑 중장기병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서양 중세 기사들이 평상시, 행군 때는 전마 대신 작은 조랑말들을 타고 다녔다는 연구²³⁾, 기마술에 뛰어난 유목민들도 평시에는 전마에 타지 않고 전투 직전에만 탔다는 연구²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 가야 여러 고분에서 확인되는 마갑들은 실전용이 아닌 의례용이었을까? 고구려를 포함한 고대국가들, 고려, 조선과 같은 후대 왕조들은 국가의 중요 전력인 기병을 확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 중에는 중장기병에게 걸맞은 말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²⁵⁾. 기병, 그 중 마갑 중장기병에게 어울리는 말은 고대엔 호마(胡馬)로 불렸다. 호마의 크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속일본기(續日本記)』

22) 현대 승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구의 합이 약 20kg 정도 된다.

23) D. Nicolle 2011, 『European Medieval Tactics, Vol. 1: The Fall and Rise of Cavalry 450-1260』, Osprey Publishing, p.43, 44

24) 徐榮教, 2004, 「高句麗 壁畫에 보이는 高句麗의 戰術과 武器 -기병무장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7. p.353

25) 이홍두, 2013, 「고구려 胡馬의 유입과 鐵騎兵」, 『역사와실학』 Vol.51, 역사실학회.

716년 6월 기사엔 신라가 자표마(紫驃馬) 2마리를 일본에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다. 해당 말의 크기는 5천 5촌, 즉 165cm²⁶⁾이라 전해진다²⁷⁾. 또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현대 품종들의 크기가 최소 152cm를 넘기는 경형마(Lighter horse)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²⁸⁾, 호마의 크기도 최소 152cm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최소 350kg, 종에 따라서는 최소 430kg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²⁹⁾. 430kg의 경우 마갑을 입혔을 때 27~34%이다.

다만 430kg은 현대에 군마로 사육돼 나온 말들을 측정한 수치기 때문에 고, 중세의 말들은 이보다 가벼울 것으로 추측된다³⁰⁾. 또한 고고학 조사를 통해 서양 고대 전마 중 하나의 체고가 약 148cm, 무게는 약 400kg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³¹⁾. 그러므로 한국 고대 호마의 무게도 약 350~400kg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00kg의 경우, 마갑을 입혔을 때 약 30~37%에 해당한다. 이 경우 말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무게는 아니나, 여전히 장시간 움직이면 무리가 가는 무게다.

결론적으로 마갑 중장기병의 무게는 전투를 위해 서역에서 도입된 호마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이는 마갑 중장기병의 전술적 활용 폭을 좁히는 요소로 작용했다.

26) 서영교, 2017,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향도부산』 no.33,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p.125

27) 다만 이 체고가 오늘날의 기준인 발굽에서 어깨까지의 높이인지, 발굽에서 머리까지의 높이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더 작은 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28) E. H. Edward, 2016, 『The Horse Encyclopædia』, DK. pp.99~103

29) R. C. Obrecht, 1908, 「Market Classes and Grades of Horse and Mules」, 『Bulletin』 No. 122 University Of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92

30) 근대 경기병들이 타던 말은 중세, 고대에는 대형마로 취급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무게를 가지고 있다.

31) J. Gassmann 2018, 앞의 글. p.68

4. 한국 고대 중장기병의 대보병 전술

가. 전술의 간략한 정의

한국 고대 중장기병 전술을 알아보기 전 전술을 간략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Vom Kriege)』에서 전술을 전투력을 운용하는 방법의 가르침, 전략을 전쟁목적을 위해 전투를 운용하는 방법의 가르침으로 정의했다. 또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략은 국가 혹은 집단이 적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전투들을 활용하는 방법, 전술은 전투 내에서 전투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문제로 정의된다.

이때 전술은 편제, 지휘체계, 무기체계, 보급체계와 뿐 아니라 적과 마주했을 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도 포함된다. 또한 전술은 특정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다시 고려하는 행위, 행동을 강요하는 상황을 극복해내는 방법 등 전투에서 발생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무기를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 적과 마주쳤을 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 관습 등도 전술에 해당된다. 본고에선 이 개념에 입각, 먼저 중장기병의 대보병 전술을 살펴본 후, 대기병 전술, 그리고 중장기병과 군사작전 순으로 한국 고대 중장기병의 전술을 알아보겠다.

나. 중장기병 대 보병

중장기병 전술을 알기에 앞서 가장 먼저 말의 행동과 습성을 파악해야 한다. 말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면 도약한다³²⁾. 그러나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거나 장애물 옆으로 통과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옆으로 지나간다³³⁾. 매체 등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말과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적의 방진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말 그리고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생존 본능과 맞지 않다. 특히 보병보다 숫자가 적은 경우가 일반적인 기병은 이러한 상황에 더 심한 거부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적과 직접적인 접촉을 수행하는 중장기병들은 적과 닿지 않으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즉 삭(槊)과 같이 길이가 긴 창을 선호한다. 현대인 20세기까지도 기병이 창을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만큼 창과 중장기병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마상에서 창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4개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한쪽 팔을 위로 들고 팔꿈치를 굽힌 뒤, 창을 쥐고 찌르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한쪽 팔을 허리 아래쪽으로 늘어뜨린 뒤, 창을 쥐고 찌르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창을 양손으로 잡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카우치드 랜스(Couched lance)라 불리며 겨드랑이 또는 허리춤에 창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32) H. Waring 2003, 『Horse Behavior』, William Andrew Publishing. p.49

33) J. Gassmann 2018, 앞의 글. p.74

<그림 1> 마상창 사용예시 ① (1: 국보 제275호 기마 인물형 뿔잔, 2: 티투스 플라비우스 바수스(Titus Flavius Bassus) 묘비석, 3: 알렉산더 모자이크 (Alexander Mosaic), 4: 레우카디아(Lefkadia) 킨치 무덤(Kinch Tomb)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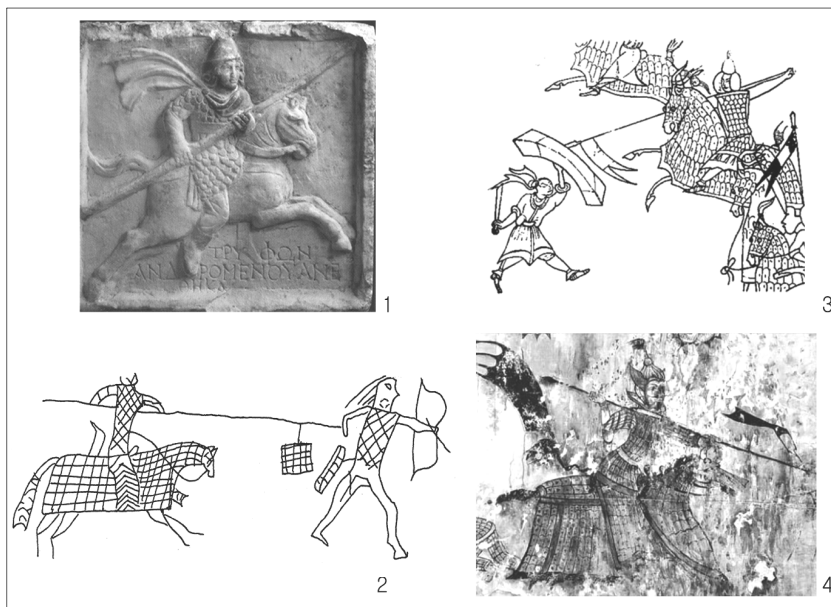
- 34) 2. 티투스 플라비우스 바수스는 트라키아(Thracia) 사람인 무칼라(Mucala)의 아들로 26년간 로마군에서 기병으로 복무하다 46살에 죽었다. 묘비석의 연대는 기원후 70~96년으로 추정되며 현재 로마-독일 박물관(Römisch-Germanisches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3. 알렉산더 모자이크는 폼페이 파우누스 저택에서 확인되었다. 모자이크의 제작연도는 기원전 2세기로 보이나 기원전 4세기 그리스 화가의 그림을 모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Alexander_Mosaic
4. 마케도니아(Macedonia) 왕국 당시 조성된 무덤으로 기원전 4~3세기 무덤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 <http://history-of-macedonia.com/>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인간이 말 위에 올라타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용한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김해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에서 확인된다. 한쪽 손에는 방패,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방식의 창술이 고대 한반도에도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 ‘기마 투창돌격 전술’이 한반도 남부의 주된 기병 전술이라는 연구가 있다³⁵⁾. 그러나 이는 투창만을 위한 자세라기보다는 다른 기병들의 사례와 같이 창을 찌르는 동시에 여차하면 던지기 위한 자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손으로 창을 잡는 방식과 관련된 고고학, 회화 자료는 유라시아 전역에서 확인된다. 이 방식은 창을 양손으로 잡기 때문에 매우 긴 창을 쓰더라도 무게중심을 잡는 데 유용하다. 고대 한반도에선 고구려 고분벽화에 창을 양손으로 쓰는 모습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삼실총의 공성도, 통구 12호분 중장기병이 창을 쓰는 모습, 덕흥리 고분벽화에서 창머리를 위로 한 채 양손으로 들고 행진하는 중장기병의 모습이 있다. 또한, 돈황 석굴벽화에서도 보병을 공격하는 중장기병이 창을 양손으로 잡고 창머리를 아래로 해 보병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인다. 즉, 한반도 남부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고대 동아시아에선 창을 양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5) 송영대, 2018, 앞의 글. p.28, 29

<그림 2> 마상창 사용예시② (1:트리폰(Trifon) 묘비석, 2:알타이(Altai) 지역 초기 튀르크(Truk) 암각화(D. Nicolle, 2017), 3: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제 285호 벽화, 4: 통구 12호분)³⁶⁾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12세기 중엽 유럽 중장기병들이 발명한 이후 유럽 및 유럽 군사문화에 영향을 받은 지역들에선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명나라 가정 5년(1526년)에 그려진 그림에서 기병들이 창을 양손에 들고 싸우는 모습이 보이며, 1790년 조선 시대에 간행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도 이 방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측된다. 즉 한국 고대 중장기병들도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36) 1. 안드로메노스(Andromenos)의 아들 트리폰의 묘비석. 돈(Don) 강 하류의 그리스 도시인 타나이스(Tanais) 유적에서 확인됨.
 사진출처: <http://www.encyclopediaofukraine.com>

한국 고대 중장기병이 전장에서 어떻게 포진했는지는 알 수 없다. 타지의 사례들을 참고해보면 중앙에 보병이 위치하고 좌우익에 기병이 배치되는 식³⁷⁾, 또는 기병이 주력이었던 유럽 중세처럼 보병 앞쪽에 기병이 배치된 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⁸⁾.

중장기병은 돌격 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병의 돌격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밀집대형을 갖추고 걷기(Walk), 혹은 구보(Canter)로 나아가는 단계다. 기병의 돌격은 밀집된 상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기에 근대의 기병들에겐 서로 ‘무릎과 무릎이’ 닿을 정도로 밀집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고대 중장기병이 밀집대형을 이루는 장면은 약수리 벽화고분 행렬도에서 확인된다. 행렬도에서는 기병들이 1열 횡대를 이루고 있고, 서로 부딪힐 정도로 밀집하고 있다. 밀집대형을 이루는 방식은 시대 및 지역마다 다양하다. 2열의 횡대를 이루는 경우, 췌기 대형을 이루는 경우 등등이 있다. 다만 고구려 벽화고분으로 알 수 있는 대형은 횡대를 이루는 경우, 그리고 행진을 위해 종대를 구성하는 경우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송(宋)나라 시기 편찬된 병서 『무경총요(武經總要)』에선 4열 횡대, 혹은 5열 종대 등의 기병대형이 보인다. 즉 한국 고대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밀집대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속보(Trot)로 적 진형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다.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면 마지막 단계인 질주(Gallop)를 시작한다. 이 두 과정에서 만일 중장기병이 활을 장비하고 있다면 화살을 발사했을 것이다. 실제로 돈황 막고굴 벽화의 마갑 중장기병은 전통(箭筒)을 장비하고 있으며, 마상궁술

37) N. P. Milner, 2001, 『*Vegetius: Epitome of Military Science*』, Liverpool University Press. p.98

38) M. Bennett, 2006, 『*Fighting Techniques of the Medieval World*』, Thomas Dunne Books, St. Martin's Press. p.96, 100

문화가 강한 유목민들은 마갑 중장기병도 활을 장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선 이러한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 반도 남부 각 고분에선 마갑과 철촉이 같이 부장되는 경우가 흔하며, 합천 옥전 28호, M1호에선 성시구가 마갑과 공반되고 있다.

마지막 과정에서 중장기병은 창을 적에게 겨눈다. 이후 말이 적진 앞에서 멈추기 전에 기병의 속도, 질량을 적에게 최대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돌격이 마무리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마지막 과정인 질주는 생략되곤 한다. 질주를 시작하면 말들은 옆 말과 부딪히는 걸 피하고자 본능적으로 서로 거리를 벌리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속도 또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면서 밀집대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³⁹⁾.

중장기병이 돌격하는 동안 말과 기병을 노리고 적 정보병들이 중보병 진형 사이 혹은 전방에서 산병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날아오는 화살, 투창, 투석구, 다트(Dart)와 같은 투척, 투사무기들은 갑옷을 입지 않은 말이나 병사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다. 반면에 마갑 중장기병들은 적의 투사무기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중장기병 돌격이 적 진형에 일으키는 충격은 물리적 충격과 심리적 충격으로 나뉜다. 물리적 충격은 접촉 전에 발사한 화살 및 투창 그리고 내지른 창과 같은 무기에 의한 사상자를 뜻한다. 마갑은 보병과 중장기병이 서로 가까워지는 기간, 그리고 접촉하는 순간 발생하는 보병의 대항행위로부터 기병의 생명인 말을 지켜주는 훌륭한 수단이다. 그러나 냉병기가 주를 차지했던 전근대의 전장에서선 쌍방의 공격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사상자는 전체 사상자 내에서 매우 작은 비중만 차지한다. 그보다는 한쪽 진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39) B. Nosworthy, 1997, 『Battle Tactics of Napoleon and His Enemies』, Constable & Robinson. p.273

발생하는 추격, 섬멸전에서 사상자 대부분이 발생한다⁴⁰⁾. 쌍방의 공격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 내에서도 화살, 투석구 등과 같은 투사무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창, 칼과 같은 근접병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⁴¹⁾.

<그림 3> 헤이스팅스 전투. 앵글로-색슨 방패벽과 노르만 기병,
『바이의 태피스트리(Bayeux Tapestry)』



그러므로 돌격의 물리적 충격만으로 적 진형을 붕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보다는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심리적 충격, 그리고 돌격이라는 행위 자체가 발생시키는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 적 진형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병 돌격의 주목적이다. 실제로 전근대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전에서도 적의 전투의지를 꺾는 것이 물질적인 파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⁴²⁾. 더불어 전근대 전투에선 보병이 밀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적의 전투의지를 꺾어야만 적을 물질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틈이 발생한다.

전투상황에서 각각의 병사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전투가 만들어 내는

40) A. du Picq, 2005, 『Battle Studies, Ancient and Modern Battle』, The Project Gutenberg EBook(<https://www.gutenberg.org/ebooks/7294>).

41) 鈴木真哉, 2001, 『謎とき日本合戦史—日本人はどう戦ってきたか』, 講談社現代新書.

42) 임종화, 「1차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 장군 군사사상의 현대적 함의」, 『산업진흥연구』, Vol.5, no.2, pp.88~91

어마어마한 소음, 그리고 눈먼 화살, 투창, 총알, 대포알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등의 극단적인 환경은 이를 견뎌야 하는 병사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마갑 중장기병이 밀집, 창을 내밀고 돌격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상대하는 측에게는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이 작용한다. 더 나아가 마갑과 갑주를 갖추고 있다는 마갑 중장기병의 특징만으로도 적의 응집력은 감소될 수 있었다. 병사들은 교전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장비,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투현장에서 이탈하고 싶은 충동을 계속 겪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면 만약 중장기병 돌격이 적의 진형을 붕괴시키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이어질까? 사실 중장기병이 돌격을 성공시킨 사례만큼 돌격이 실패한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만 꼽아도 관구검이 지휘한 위군(魏軍)과 동천왕의 고구려군 사이의 비류수(沸流水) 전투, 니시비스(Nisibis) 전투⁴⁵⁾, 헤이스팅스(Hastings)⁴⁶⁾, 코르트레이(Courtria) 전투⁴⁷⁾, 배넉번(Bannockburn)⁴⁸⁾, 크레시(Crecy), 푸아티에(Poitiers), 아쟁쿠르(Agincourt)⁴⁹⁾ 등등이 있다. 이러한 사

43) 존 키건(정병선 역), 2005, 『전쟁의 얼굴』, 지호. pp.166~169

44) A. du Picq, 2005, 앞의 글.

45) 로마-파르티아 전쟁중 하나인 카라칼라의 파르티아 전쟁(Parthian war of Caracalla) 와중인 기원후 217년, 로마군과 파르티아 군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인 니시비스에서 충돌한 전투.

46) 1066년 노르망디 공작인 윌리엄 1세(William I)가 이끄는 군대와 잉글랜드(England)의 왕인 헤럴드2세(Harold Godwinson)가 이끄는 군대 사이의 전투.

47) 1302년 프랑스군과 플랑드르 백작령(County of Flanders) 소속 민병대 사이의 전투. 플랑드르 민병대가 프랑스 무장병, 기사들을 압도한 전투로 유명하다.

48) 1314년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전투. 스코틀랜드 군의 장창방진(Schiltron)과 더불어 기병, 보병, 궁병 간의 유기적인 협동이 압도적인 전력의 잉글랜드 군을 격파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전투다.

49) 세 전투 모두 백년전쟁 중에 벌어진 전투로 각각 1341년, 1356년, 1451년에 일어났다. 세 전투의 공통점은 프랑스 군의 중기병 돌격을 지형, 장애물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무력화시켰다는 점에 있다.

례들을 살펴보면, 기병 돌격을 실패로 끝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이 돌격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응집력이 높은지의 여부, 그리고 보병진에 충격을 주기 전 기병을 방해 또는 멈추게 할 수 있는 환경 및 수단이 마련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즉 단 한 번의 중장기병 돌격만으로 적 진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지형(숲, 개울, 높은 언덕과 같은 방해물이 없는 평탄한 지형), 적의 미흡한 대처, 적의 낮은 응집력 등의 다양한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돌격에서 적 진형을 붕괴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했다. 그렇기에 그 후의 대비책들도 항상 마련되어 있었다. 돌격이 실패했을 경우 기병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⁵⁰⁾.

- ① 후퇴해서 진을 갖춘 다음 적진이 무너질 때까지 재차 돌격한다.
- ② 다음 차례에 실시되는 돌격으로 적진이 붕괴될 수 있게 상대방에게 투사무기를 발사한다.
- ③ 아군 보병의 엄호 또는 아군 보병을 엄호하면서 적 진형의 취약한 부위인 후방이나 측면을 공격한다.
- ④ 보병 주변을 기동하면서 적이 지형상 유리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적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 약점을 노출하게끔 한다.

①번, 즉 재차 돌격하는 방식은 후퇴 후 재집결, 부러진 창을 보급한 후 밀집대형을 형성, 다시 돌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훈련되고 고도로 조직된 부대만이 실시할 수 있다. 후퇴 후 재차 돌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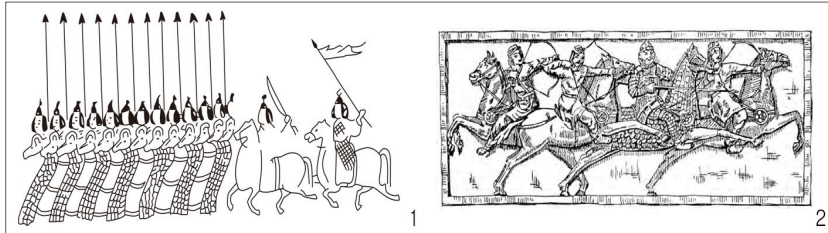
50) 각각의 행동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①~④의 행동들은 본고엔 돌격이 실패하고 난 뒤 실시하는 전술 행동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론 중장기병이 돌격하기 전·후 언제든지 실시되는 행동들인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갑을 갖춘 중장기병도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이다. 다만 마갑의 무거운 무게가 이를 지속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마를 여러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바꿔 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②번, 즉 투사무기를 통한 적 응집력 감소는 아군 경보병, 경기병이 산병전을 치를 수 있는 상황 및 탄약이 허락하는 한 전투상황 내내 발생한다. 마갑 중장기병은 ②번의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마갑은 전마에게 상당히 부담 되는 무게인데 적진 주위를 끊임없이 기동하면서 투사무기를 발사해야 하는 상황에 마갑 중장기병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자 중장기병과 경기병을 한 진 안에 배치하거나 혹은 양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끔 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장기병과 투사무기를 든 기병 조합의 필요성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전통이 강하지 않은 중세 유럽에서도 쇠뇌를 든 경기병이 탄생하게 했다⁵¹⁾. 또한, 경기병은 적 진형에 투사무기를 발사해 응집력을 감소시키는 역할 외에도 적 기병의 기습적인 공격을 대비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중장기병과 경기병이 같이 활약하는 모습은 약수리 벽화고분, 덕흥리 벽화고분, 돈황 막고굴 벽화에서 확인된다. 또한, 다른 고분벽화에서는 활을 든 경기병이 묘사된다. 송나라 시대 병법서인 『무경총요』에서도 창을 든 기병과 활을 든 기병이 순차적으로 적을 공격한다 언급하고 있다. 기병의 배치도 창을 든 기병이 최고 앞 열에, 활을 든 기병이 그 뒤로 여러 횡대를 이루어 포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고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기병 운용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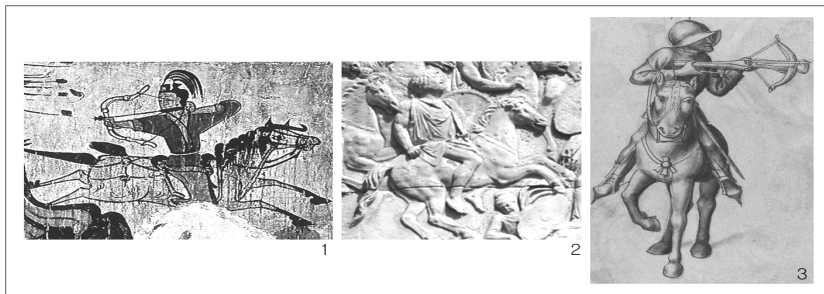
51) J. Gassmann, 2014, 『Thoughts on the Role of Cavalry in Medieval Warfare』, 『Acta Periodica Duellatorum』 Vol. 2, Sciendo, p.158

<그림 4> 중경기병 혼용 예시 (1: 약수리 벽화고분, 2:우즈베키스탄 칼차얀(Khalchayan) 유적 전투도(M. Olbrycht, 2015)



③번은 ‘망치와 모루’ 전술로 볼 수 있다. 적 기병이 없거나 혹은 도주한 상태에서 적의 정면을 아군 보병이, 취약한 측면과 후방을 아군 중장기병이 공격해 적의 붕괴를 이끌어내는 전술은 칸나에(Cannae) 전투⁵²⁾에서처럼 성공만 한다면 적에게 압도적인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 진형(Formation)은 기본적으로 전방에 전투력을 집중한다. 그러므로 측면과 후방에는 전투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림 5> 투사무기 사용 기병 예시(1: 무용총 수렵도, 2: 트라야누스 원주 누미디아(Numidia) 기병, 3: 한스 탈호퍼(Hans Talhoffer)⁵³⁾)



52)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인 기원전 216년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Hannibal Barca)의 군대와 로마군이 치른 대표적인 결전이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병력 대부분이 전사 혹은 포로로 잡히는 대패를 겪었다.

53) 3. 한스 탈호퍼, 『전투술(Fechtbuch)』 (1467), 독일,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 백작을 위해 제작,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 소장, 사진출처: <https://mdz-nbn-resolving.de/bsb00020451>

이쪽으로 기동성이 좋은 기병이 이동해 공격하는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기병 운용방법 중 하나며, 이는 마갑 중장기병에게도 마찬가지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도 이 전술은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군 후방을 공격한 당나라 기병이 있다⁵⁴⁾.

④번은 흔히 거짓 퇴각(Feigned retreat)으로 불린다. 말 그대로 거짓으로 퇴각, 적의 전력 전체 또는 일부라도 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 적의 약점을 아군에게 노출하게 하는 전술이다. 적의 약점을 드러내는 기동은 한 번의 시도로 성공되는 경우는 잘 없으며, 수차례에 걸친 도발과 후퇴를 거듭한 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마갑을 걸친 중장기병은 마갑의 무게로 인한 말의 선회문제, 체력문제로 이러한 기동을 지속하는데 큰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적의 응집력이 감소하면, 적 진형에는 동요가 발생한다. 동요는 대개 후열 또는 측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앞 그리고 중간 열에 있는 병사들은 뒤나 옆에 있는 아군 병사들에 가로막혀 도망갈 수 없지만, 측면과 후열의 병사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동요가 발생하고 진이 와해되기 시작하면 밀집이 풀리면서 보병 사이로 틈이 발생한다. 만일 동요를 진정시키지 못해 진이 완전히 무너지면 중장기병과 기병들이 물리적으로 적 진형을 돌파,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다⁵⁵⁾. 돌파하는 와중 기병들은 창 혹은 대도와 같은 근접병기들을 적에게 휘두른다. 그 후 전의를 상실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적들을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 추격, 섬멸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소결하면 매체에서 묘사되듯 중장기병이 밀집대형을 형성, 적진에 충격과 같이 물리적으로 들이받아 적 진형을 산산이 부수는 장

54) 이흥두, 2010,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진」 『軍史』 제7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39~42.

55) 李仁哲, 1996,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軍史』, 33, pp.10~12

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선 볼 수 없다. 중장기병 돌격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적을 동요하는 데 특화된 전술이다. 또한, 기병은 말을 타고 있어 보병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며, 기동의 지속시간도 훨씬 길기에 이를 응용한 다양한 전술이 탄생했다. 돌격은 그 수많은 전술 중 하나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그 위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전술이다.

마갑 중장기병은 마갑이라는 무거운 장비가 추가됨으로 인해,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속도의 기동을 장시간 동안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마갑 중장기병의 전술적 활용 폭이 경기병, 일반 중장기병에 비해 좁다는 점을 뜻한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갑 중장기병은 투사무기를 갖춘 경기병과 같이 편제되거나 이들의 엄호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마갑 중장기병의 위력은 활용 폭이 좁은 만큼 성공하기만 한다면 적을 단번에 와해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돌격 과정에서 마갑은 적의 투사무기, 근접병기로부터 기병의 생명과 같은 말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다. 그렇기에 적의 측면이나 후위를 노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갑 중장기병이 적의 저항이 강하게 발생할 정면으로 돌격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마갑은 말을 보호하는 수단인 동시에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무기다. 마갑과 마주, 갑주, 마구, 화려한 장식, 그리고 기다란 창을 갖춘 밀집된 중장기병은 전투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적병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피와 공포의 대상이며, 돌격이라는 행위는 이러한 공포를 증폭시켰다. 이런 마갑 중장기병의 위력은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서 4세기라는 이른 시기부터 마갑 중장기병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중세까지도 마갑 중장기병들이 경기병과 혼성을 이루어 대량으로 운영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5. 중장기병의 대기병 전술과 작전

가. 중장기병 대기병

중장기병 대기병의 양상도 근본적으로는 대보병진과 다르지 않다. 중장기병과 경기병의 직접적인 접촉은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기병끼리의 접촉 자체가 기병과 보병의 교전에 비해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전근대 시기에는 경기병과 중기병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기병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기병인지 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선 중장기병이 활을 들고 마치 경기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⁵⁶⁾. 그렇기에 이론보다 훨씬 복잡하고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기병들은 적 보병 또는 적 기병과 가능한 간격을 계속 유지, 체력, 지형, 탄약이 허용하는 한 산병진을 지속,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적의 응집력을 낮추는 역할을 선호한다. 반면 중장기병은 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중장기병과 경기병의 싸움은 한쪽은 쫓고, 한쪽은 도망가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결국 한쪽이 전투의지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중장기병 간의 접전은 양 진형이 서로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된다.

56) 유럽 중세 초기 기사들이나 대부분의 유목 국가의 기병들처럼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말 위에서 자유롭게 활을 쏠 수 있도록 훈련받거나, 아니면 고대 로마처럼 마갑을 입힌 말을 탄 마궁수(Equites Sagittarii Clibanarii)와 같은 병종이 존재하기도 했다.

기병 사이의 돌격도 보병에 대한 돌격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 돌격을 통해 노리는 효과 역시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만일 돌격하는 와중 한쪽이 자신의 전투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되면 진형의 응집력은 급속도로 사라져 버린다. 이후 전투의지를 상실한 기병들은 기병의 빠른 속도를 이용, 전장에서 빠르게 이탈한다⁵⁷⁾. 때때로 숙련병들은 적에게 접근하고 싶으나 말이 이를 거부, 두 개의 진형이 일정 거리를 두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도 발생했다⁵⁸⁾.

<그림 6> 요한 야콥 폰 왈하우젠(Johann Jacob von Wallhausen), 『기병술(Ritterkunst)』의 삽화(1616)⁵⁹⁾



57) A. du Picq, 2005, 앞의 글.

58) B. Nosworthy, 1997, 앞의 글. p.272

59) 요한 야콥 폰 왈하우젠, 『기병술』(1616),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제작,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 소장, BSB-D1162465,

사진출처: <https://www.digitale-sammlungen.de/en/view/bsb10359342?page=2,3>

양 진형에 속한 기병들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충돌한다면 양 기병들은 서로를 지나쳐버리거나 혹은 바로 혼전(mêlée)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밀집대형을 유지, 돌격을 시작했을지라도 결과는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적과 말 그대로 부딪혀 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말이나 기병들이 본능적으로 틈을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질주 단계에 이르면 말들은 옆 말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서로 간격을 벌린다.

만일 정말로 밀집을 유지한 채 양 기병들이 서로 충돌했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그렇게 되면 두 기병진 사이로 창이 튀어나와 있는 정도의 거리만 형성된 채 양 기병은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밀집된 진형으로 인해 말이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이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다. 실제 상황과 같이 돌격하는 와중 피해가 누적되고 지형도 고르지 않고, 온갖 변수와 불확실성이 곳곳에 깔린 전장에서 양 기병이 충돌의 순간까지 정말로 밀집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서로의 창에 찔린 말과 기병이 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장애물과 거기에 걸린 뒷열의 기병들이 한 곳에 마구잡이로 뒤섞인 끝에 결국 죽거나 다친 말과 기병의 무더기만이 남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다⁶⁰⁾. 이는 그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는 결과다.

그렇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두 기병진은 충돌하기 전 밀집대형을 풀어버린다. 이후 양 진형 사이에 생긴 틈 사이로 서로의 기병들이 치고 들어가 서로에게 창과 칼을 휘두른다. 만일 전투현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병은 말을 돌려 적 기병들 사이의 틈 사이로 돌입, 적을 공격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상황을 혼전(mêlée)이라 부른다. 양 중장기병이 충돌한 이후의 전투는 진과 진의 싸움

60) 존 키건(정병선 역), 2005, 앞의 글,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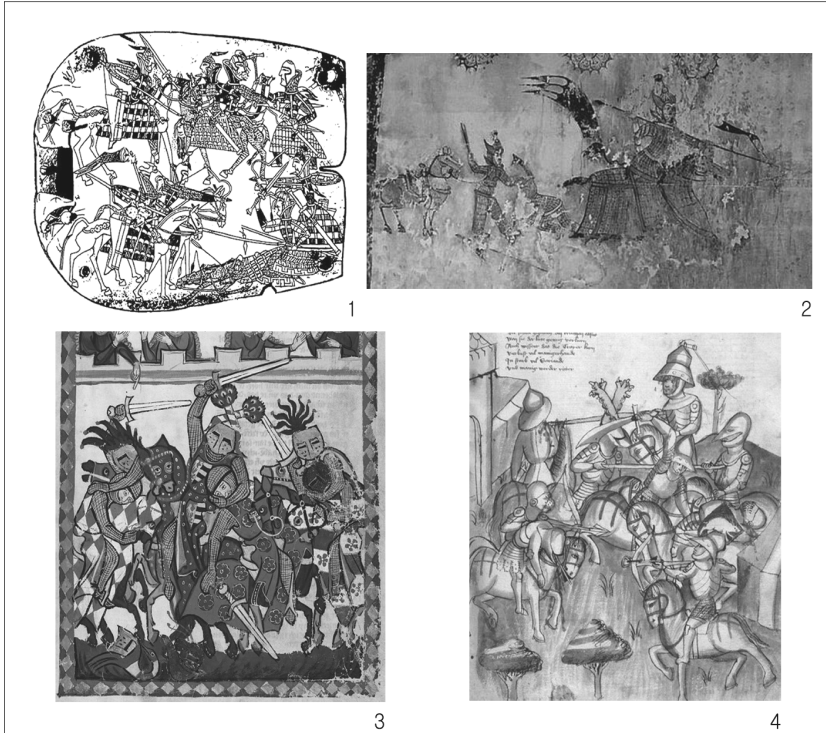
이 아닌,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다수, 다수 대 다수의 싸움으로 바뀐다. 혼전의 승패는 어느 쪽에 도주하지 않고 버티는 쪽이 더 많은가로 결정된다.

혼전 속에서도 창은 유용한 무기다. 중장기병은 창머리를 사람에게 향해 적의 저항 의지를 꺾고 전투력을 소멸시켰다. 솜씨가 좋은 병사는 말 위에서 창으로 적을 바로 죽이거나 창을 빼앗았을 것이나, 『일본서기(日本書紀)』 19권 흠명기 14년 기록에서처럼 적을 낙마시키기도 했다. 말에게 창머리를 향하는 것은 기병의 생명과 같은 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상대방이 더는 기병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적을 낙마시키는데 초점이 잡혀 있다. 마갑 중장기병은 마갑 덕에 본인의 말이 적군의 창에 의해 상해를 입고 날뛰어 전장을 이탈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거나 죽어 낙마하는 상황을 다른 기병들보다 훨씬 적게 겪었을 것이다.

혼전 상황에서는 창만큼이나 대도, 검, 도자(刀子)와 같은 길이가 비교적 짧은 무기들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병 사이의 틈으로 기병들이 치고 들어가는 만큼 기병과 말들은 원치 않더라도 서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말 위에서 무기를 잃어버린 상태거나 혹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낙마시키기 위해 가까운 거리를 이용, 상대방을 손으로 붙잡고 비틀거나 잡아 던지는 경우도 일어났다. 숙련병들은 말 위에서 적을 제압, 자신의 전공을 증명해줄 수 있는 전리품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혼전이 발생하면 중장기병과 같이 편성, 혹은 중장기병 인근에서 중장기병을 엄호하던 다른 기병들도 혼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갑주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가능한 자제했다. 그 대신 자신들이 가진 활, 투창, 쇄뇌 등과 같은 투사무기들을 적극적으로 사용, 적 병사나 말을 노리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림 7> 기병 간 혼전 상황 예시 (1: 오를랏 전투 명판(Orlat battle plaque) (M. Olbrycht, 2015), 2: 통구 12호분, 3: 『코텍스 미네상(Codex Manesse)』 (1304), 4: 『트로이 전쟁의 역사(History of the Trojan War)』 (1441)⁶¹⁾



고대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중장기병 사이의 싸움도 이러한 양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실총 공성도에서 두 중장기병이 싸우는 모습, 통구 12호분 참수도에서 교전하는 중장기병들의

61) 3. 저자 다수, 『코텍스 미네상(Codex Manesse)』 (1304), 취리히,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 도서관 소장, Cod. Pal. germ. 848, 사진출처: 필자 소장 Pdf에서 발췌.

4. 콘라드 폰 뷔르츠부르크(Konrad von Würzburg), 『트로이 전쟁의 역사』 (1441), 독일, 독일 국립 박물관(Germanisches Nationalmuseum) 소장, GNM Hs998, 사진출처: <http://dlib.gnm.de/item/Hs998/html>.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를 갖춘 집단 사이의 교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묘사된 단기접전, 또는 통구 12호분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소규모 접전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장기병 사이의 싸움은 양측 모두 단단한 갑옷으로 전신을 보호하고 있었기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였다. 게다가 싸움이 장시간에 걸친 경우도 많았다. 경주 쪽샘 C-10호에서 출토된 찰갑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묘사된 중장기병들을 보면, 얼굴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갑주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창, 대도, 도자와 같은 무기를 찢러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얼굴, 겨드랑이 인근으로 제한된다. 단단한 갑주를 갖춘 상대방을 제압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1351년의 브르타뉴 계승 전쟁(War of the Breton Succession) 중에 벌어진 30인의 전투(Combat of the Thirty)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전신을 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한 양측은 아침부터 밤까지 탈진을 거듭하면서 싸운 끝에 잉글랜드는 9명, 프랑스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4명 보다는 많은 전사자가 나왔다. 양측에 소속된 전투원들이 모두 매우 높은 전투의지, 전투능력을 가진 전사(용병) 엘리트(기사) 계층임을 고려하면 전신갑주를 갖춘 중무장병 사이의 싸움은 엄청난 체력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싸움임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죽지 않고 낙마하면 중장기병은 상황에 따라 여러 행동을 취한다. 먼저 말 위에서 떨어진 상대방을 향해 창이나 대도, 혹은 활과 같은 무기로 공격, 적을 사살하거나 전투력 또는 전투의지를 완전히 소멸시켜 포로로 잡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말에서 본인도 같이 내리는 경우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말이 혼전 속에서 탈진해 버린 경우, 말 위에서는 적 갑옷의 틈 사이로 치명상을 입힐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적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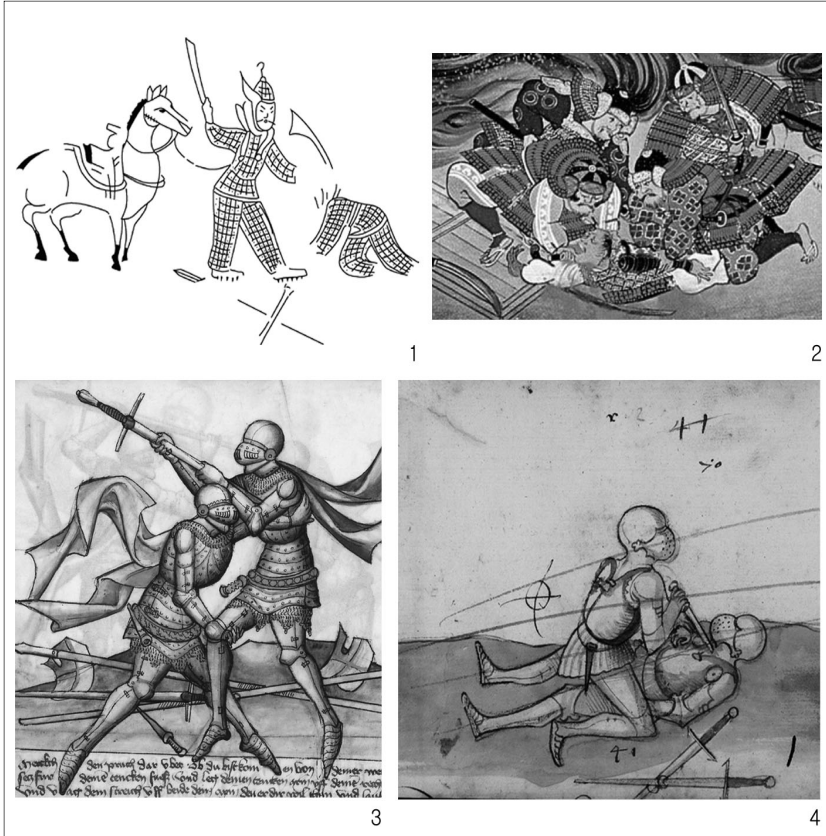
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마하게 만든 경우다. 그러나 세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마라는 위험을 무릅쓴 경우다.

적에게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갑옷, 무기, 말, 등이 있다. 하지만 갑주, 무기 같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전리품들은 대개 전투가 끝난 후, 시체나 부상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²⁾. 전투 중 적에게서 취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용기와 전공을 전장의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군기(軍旗)나 적을 포로로 잡는 행위, 그리고 적의 수급(首級)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선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급이 전공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적의 수급을 취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다.

고대 한반도에선 사회 상류계층만이 철제 갑주를 갖추고 이를 무덤에 부장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수급을 취할 가치가 있는 상류층들은 대개 철제 경갑(頸甲)과 투구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수급을 취하기 위해선 하마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 이는 통구 12호분 참수도과 『일본서기』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만일 낙마한 적이 치명상을 입어 저항할 수 없거나 사망한 상태라면 경갑과 투구를 벗기거나 치운 상태로 길이가 짧은 도나 도자를 찢어 넣어 수급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낙마했음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적은 살아남기 위해 반격했을 것이다. 참수도에서도 낙마해 무릎을 꿇고 있는 쪽이 한쪽 손을 뻗어 바닥에 있는 무기를 잡고 반격하려고 한다.

62) 1361년 스웨덴 비스뷔(Visby) 전투 후 조성된 집단 매장지를 발굴조사 한 결과, 갑주를 착용한 채 대량으로 매장된 시신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더운 날씨와 2000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신의 양 때문에 전리품을 포기한 특수한 경우라 볼 수 있다(B. Thordeman, 1939).

<그림 8> 중무장병 근접전 예시(1: 통구 12호분, 2: 『아시아마테라엔기에마키(石山寺緣起繪卷)』 제6권 제25단(段), 3: 검투술(Gladiatoria)』 (1430), 4: 요르그 빌헬름 후터(Jörg Wilhalm Hutter)(1520).⁶³⁾



63) 2. 『아시아마테라엔기에마키(石山寺緣起繪卷)』, 일본, 가마쿠라 막부 기간인 쇼우츄우(正中)년간(1324~1326)부터 제작된 것으로 추정. 아시아마테라(石山寺) 소장. 사진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石山寺緣起繪卷>

3. 작자미상, 『검투술(Gladiatoria)』 (1430), 빈 미술사 박물관 소장(Kunsthistorisches Museum), KK5013. 필자 소장 관련서적에서 발췌.

4. 요르그 빌헬름 후터, 『검술서(kunst zu Augspurg)』 (1522), 독일, 아우구스부르크(Augsburg) 대학 도서관 소장. Cod.I.6.4^o.5.

사진출처: [https://wiktenauer.com/wiki/J%C3%B6rg_Wilhelm_Hutters_kunst_zu_Augspurg_\(Cod.I.6.4%C2%BA.5\)](https://wiktenauer.com/wiki/J%C3%B6rg_Wilhelm_Hutters_kunst_zu_Augspurg_(Cod.I.6.4%C2%BA.5)) Cod.I.6.4^o.5

참수도는 수급을 취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낙마한 병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죽지 않기 위해 상대방과 싸웠을 것이다. 이윽고 두 병사는 서로 엉겨 붙어서 갑주와 갑주, 무기와 무기를 부딪치면서 상대방 갑주 사이의 빈틈을 노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심지어 양쪽이 모두 무기를 손에서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그래도 싸움은 멈추지 않고 레슬링, 관절기와 같은 맨몸격투도 동원되었다. 갑주를 입은 전사들 사이의 싸움이 잦았던 서양 중세에서는 이를 위한 교범이 있었고, 이를 갈고 닦아 갑주를 갖춘 무장병을 공략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신에 갑주를 갖춘 전사들이 활약했던 고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등장, 발전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급을 취하는 과정이 곧 치명상을 입히는 과정이었기에 상대방을 자신의 체중으로 제압,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 그대로 목에 칼을 찔러 넣어 수급을 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심지어 한 명의 수급을 취하기 위해 여러 명이 달려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제압한 후 수급을 취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을 것이다⁶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한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더기로 도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한쪽이 전투의지를 완전히 상실, 전장에서 도주하기 시작하면 반대편은 이를 쫓아 추격, 섬멸하는 과정이 뒤따랐다. 이 추격, 섬멸 과정에서 사상자 대다수가 발생했다. 추격, 섬멸전에서 중장기병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혼전을 겪으며 말, 기병 모두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추격 과정은 다른 기병이나 예비대(Reserve)에 의해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결하면 중장기병 대 기병의 전술도 대 보병전과 근본적으로 다

64) 鈴木真哉, 2000, 『刀と首取り—戦国合戦異説』, 平凡社新書.

르지 않다. 즉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해 격파한다는 개념보다는 적의 응집력을 감소시켜 적을 도주하게 만드는 것이 주를 이룬다. 중장기병 간의 전투는 말의 습성, 그리고 전술적 성과를 위해 초기의 밀집대형을 유지하지 않고 혼전으로 나아가는 양상이 일반적이다. 마갑은 혼전 속에서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말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다. 동시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그 무게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장기병 간 혼전은 말 위에서의 싸움, 하마해 이루어지는 싸움으로 나뉜다. 한편, 양쪽이 전신을 갑주로 보호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매우 근접해서 싸우는 일이 잦았다. 고대 한반도,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구 12호분 참수도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수급과 같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 하마한 상태에서 두 중장기병이 근접전을 벌이는 일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한쪽 기병이 도주를 시작하면 보병 때와 마찬가지로 추격, 섬멸이 시작된다.

기병 간의 교전에서도 마갑은 말에게 엄청난 체력소모를 강요한다. 그러나 혼전 상황에서 상대방을 낙마시키기 위해 말을 노리는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했기에 대기병전에서도 마갑 중장기병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보병전과 마찬가지로 마갑은 상대방보다 자신의 전투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이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무기로 작용했다. 추측이지만 마갑 중장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와 동급인 마갑 중장기병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5세기 이후부터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넓은 지역에서 마갑 중장기병이 널리 성행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나. 군사작전과 중장기병

지금까지 언급한 전술들은 회전(會戰) 즉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쌍방의 군대가 만난 상태를 가정한 것들이다. 하지만 전쟁 혹은 군사작전(Military campaign)이라는 큰 과정에서 회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수백, 혹은 수천, 수만의 대규모 군대가 드넓은 평야에서 만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명 ‘결정적인 전투(Decisive

<그림 10> 『볼페그 성 가문지침서(Housebook of Wolfegg Castle)』 (1480) 수록 삽화



Battle)’는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어느 한쪽이 전략적 기동을 통해 더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등 승산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판돈을 거는 도박에 가까운 행위다,

65) 전쟁은 오히려 각양각색의 규모 및 특징을 가진 전술단위들이 보급의 문제, 적에게 노출돼 격파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방지, 적이 유리한 지점을

65) 저자 미상, 『볼페그 성 가문지침서(Housebook of Wolfegg Castle)』 (1480), 독일. 라인강 중부유역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 GND-Kennung:1043738894. 사진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ousebook_of_Wolfegg_Castle

차지하기 위해 기동하는 것을 방해,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함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역(戰域) 이곳저곳을 행군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 전술단위의 규모와 특징은 시대, 지역마다 다 달랐지만, 대규모의 주력과 소규모의 분견대가 필요에 따라 합쳐졌다 떨어져 나갔다 하는 패턴은 계속 유지되었다. 대규모 주력과 별개로 행동하는 소규모 분견대는 적 지역 혹은 아군 지역에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주에서 몇 달씩 독립적인 전략, 전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전술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소규모 분견대간의 전투도 전역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했다. 소규모 분견대 간의 전투에서 사용되는 전술도 사실 규모의 차이 외에는 회전에서 사용되는 전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장거리, 장시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분견대 임무는 대부분 기병으로 수행되었다. 기병 분견대의 임무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상황과 전황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정찰, 차단, 징발, 교란 등이 있다. 흔히 돌격에 특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서양 중세의 기병들, 그리고 다른 기병들도 회전보다는 이러한 소규모 분견대 활동 및 전투에서 그 위력을 최대로 발휘한다고 밝혀졌다⁶⁶⁾.

전쟁터에서 기병이 수행하는 다양한 군사작전들 속에서 마갑 중장기병의 입지는 좁은 편이다. 분견대 활동은 며칠에서 몇 달에 걸쳐 장시간에 걸쳐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마갑의 무게가 말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적의 분견대가 나타나 교전이 벌어지기 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 또한 적의 민가나 민병대, 분견대를 급습해야 하는 상황과 같은 유연하게 행동해야 하는

66) 아더 웨일 저, 이춘근 역, 1990,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pp.109~110

J. Gassmann, 2014, 『Thoughts on the Role of Cavalry in Medieval Warfare』, 『Acta Periodica Duellatorum』 Vol. 2, Sciendo. pp.170~174

경우엔 마갑의 무게가 큰 방해물이 된다. 또한, 마갑은 무게뿐 아니라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동량과 물자를 요구한다. 그렇기에 장시간에 걸쳐 적대적인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마갑은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마갑 중장기병이더라도 장기간의 분견대 임무에서는 마갑을 벗기고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마갑을 가지고 다닐 수만 있다면 소규모 분견대 사이의 교전에서 마갑 중장기병은 앞의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누구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활약했을 것이다.

6. 맺음말

인간이 말을 가축화한 이래, 전쟁터에서 말은 가장 먼저 짐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후 여러 마리의 말을 묶어 전차(戰車)로 사용하는 방법이 발명된 후 말 위에 인간이 직접 타는 방식이 탄생한다. 이윽고 기병은 시대, 장소에 맞춰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전술이 탄생하게 된다.

마갑 중장기병은 기존에 사람만을 갑주로 보호하던 것을 넘어 말까지 갑주로 보호한 기병이다. 중장기병의 등장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나 동아시아에서는 4세기부터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장기병의 전술적 활용 폭은 다른 기병에 비해 좁다. 가장 큰 이유는 말이 입는 마갑의 무게 때문이다. 마갑은 말에게 다른 기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방어력을 선사해줬지만, 그 무게는 말이 고속으로 장시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양날의 검으로 돌아왔다. 그렇기에 중장기병 돌격 이전 혹은 이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돌격이 성공하여 적진이 와해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추격, 섬멸전에서 중장기병은 그 입지가 좁았다. 이것

은 보병전 뿐 아니라 기병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갑의 방어력은 기병 간 전투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말이 장시간 활약할 수 없게 하는 족쇄였다. 말이 날랜 기병에 대한 추격, 도주하는 적 기병에 대한 추격, 섬멸전에서도 마갑 중장기병의 활용은 떨어졌다. 그렇기에 대부분 중장기병과 경기병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회전 외의 군사작전에서도 중장기병의 활용도는 떨어졌다. 소규모 분견대가 며칠, 몇 달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장시간, 장거리에 걸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작전 속에서 마갑의 무게와 까다로운 관리법은 상당히 큰 골칫거리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마갑 중장기병이 동북아시아에선 4세기에 등장, 이윽고 5세기부터는 알타이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보급된 후, 수·당을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활용된 이유는 간단하다. 마갑은 기병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말의 생존능력을 기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주었다. 또한 마갑은 그 존재만으로도 적 보병, 기병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마갑 중장기병의 돌격, 혹은 기동만으로도 적 보병, 기병의 응집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장기병간의 싸움에서 사용되는 여러 전술을 살펴보면, 추측이긴 하지만 마갑 중장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선 같은 수준의 마갑 중장기병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고대 마갑 중장기병에 의해 수행되는 전술의 위력은 앞서 이야기한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마갑 중장기병이 등장,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1. 10. 4,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중장기병, 기병, 전술, 고구려 고분벽화, 고고학, 갑주, 마갑

<참고문헌>

1. 國 文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말, 갑옷을 입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김성호, 2019, 「삼국시대 마갑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http://uci.or.kr/I804:21016-000000138927>
- 류창환, 2010, 「三國時代騎兵과 騎兵戰術」, 『한국고고학보』 제76집, 한국고고학회.
<http://uci.or.kr/G704-000699.2010..76.001>
- 徐榮教, 2004, 「高句麗 壁畫에 보이는 高句麗의 戰術과 武器 -기병무장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7. p.353
<http://uci.or.kr/G704-001250.2004..17.009>
- 서영교, 2017,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향도부산』 no.3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https://doi.org/10.19169/hd.2017.2.33.105>
- 송영대, 2018, 「高句麗 南征 이후 新羅·加羅의 전술 변화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No.3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https://doi.org/10.35160/sjekh.2018.12.30.9>
- 아더 웨일 저, 이춘근 역, 1990,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http://uci.or.kr/G901:A-0008264707>
- 李仁哲, 1996,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装騎兵」, 『軍史』, 33.
- 李蘭映, 金斗哲,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https://doi.org/G901:A-0008567726>
- 이현주, 2005, 「三韓 · 三國時代 釜山地域 軍事體制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http://uci.or.kr/G901:A-0005228578>
- 이흥두, 2010,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가마진」 『軍史』 제7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ttps://doi.org/10.29212/mh.2010..77.33>

- 이흥두, 2013, 「고구려 胡馬의 유입과 鐵騎兵」, 『역사와실학』 Vol.51, 역사실학회.
<http://uci.or.kr//G704-002032.2013..52.004>
- 이흥두, 2020, 『한국 기마전 연구』, 해안.
- 임종화, 「1차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 장군 군사사상의 현대적 함의」, 『산업진흥연구』, Vol.5, no.2.
<https://doi.org/10.21186/IPR.2020.5.2.083>
- 장경숙, 2003,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갑주」, 『慶州文化研究』, Vol.6,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http://uci.or.kr//G901:A-0001866695>
- 장경숙, 2009, 「말갑옷(馬甲) 연구시론」, 『學藝誌』 第16輯, 육군박물관.
<http://uci.or.kr//G901:A-0002895616>
- 정동민, 2007,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중장기병의 변화와 운용형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http://uci.or.kr//G901:A-0005359131>
- 정동민, 2008, 「高句麗 重裝騎兵의 特徵과 運用形態의 變化 -古墳壁畫 資料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2.
<http://uci.or.kr//G704-000848.2008..52.005>
- 존 키건(정병선 역), 2005, 『전쟁의 얼굴』, 지호.
<http://uci.or.kr//G901:A-0006086794>
- 천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http://uci.or.kr//G901:A-0005987497>
-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김만수 역), 2016, 『전쟁론(Vom Kriege)』, 갈무리.
<http://uci.or.kr//G901:A-0006620039>

2. 英 文

- A. du Picq, 2005, 『Battle Studies, Ancient and Modern Battle』 ,
The Project Gutenberg EBook.
- A. William et al, 2016,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Late
Medieval Combat with The Couched Lance』 , 『Journal of
the Arms and Armour Society』 Vol.22, Arms & Armour
Society.
- B. Cumming, 2009, 『Estimating a horse's condition and weight』 ,
『Primefacts』 928,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 B. Mckiernan, 2007, 『Estimating a horse's weight』 『Primefacts』
494,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 B. Nosworthy, 1997, 『Battle Tactics of Napoleon and His Enemies』 ,
Constable & Robinson.
- B. S. Bachrach 2002, 『CABALLUS ET CABALLARIUS in Medieval
Warfare』 , 『Warfare and Military Organization in Pre-Crusade
Europe』 , Routledge.
- B. Thordeman, 1939, 『Armour from The Battle of Wisby, 1361』
Vol, I II, Kungl Vitterhets Historie och Antikvitets
Akademien.
- D. Nicolle 2011, 『European Medieval Tactics, Vol. 1: The Fall
and Rise of Cavalry 450-1260』 , Osprey Publishing.
- D. Nicolle, 2017, 『Horse Armour in the Medieval Islamic Middle
East』 『Arabian Humanities』 Vol.8, CEFAS
<https://doi.org/10.4000/cy.3293>
- E. H. Edward, 2016, 『The Horse Encyclopedia』 , DK.
- H. Waring 2003, 『Horse Behavior』 , William Andrew Publishing.
- J. Clark, 1995, 『The Medieval Horse and Its Equipment C. 1150-C.
1450 (Medieval Finds from Excavations in London)』 ,
Museum of London.

- J. Gassmann, 2014, 『Thoughts on the Role of Cavalry in Medieval Warfare』, 『Acta Periodica Duellatorum』 Vol. 2, Sciendo.
<https://doi.org/10.36950/apd-2014-005>
- J. Gassmann 2018, 『Combat Training for Horse and Rider in the Early Middle Ages』, 『Acta Periodica Duellatorum』 Vol. 6, Sciendo.
<https://doi.org/10.2478/apd-2018-0003>
- J. Tincey, 2002, 『Ironsides: English Cavalry 1588-1688』, Osprey Publishing.
- L. E. Nolan, 1860, 『Cavalry, It's History and Tactics』, Bosworth & Harrison.
- M. Bennett, 2006, 『Fighting Techniques of the Medieval World』, Thomas Dunne Books, St. Martin's Press. p.96, 00
- M, Mielczarek, 1993, 『Cataphracti and Clibanarii, Studies on the Heavy Armoured Cavalry of the Ancient World』, Oficyna Naukowa MS.
- M. Olbrycht, 2015, 『Arsacid Iran and the Nomads of Central Asia-Ways of Cultural Transfer』, 『Complexity of Interaction along the Eurasian Steppe Zone in the First Millenium CE』,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https://doi.org/10.4000/abstractairanica.46891>
- N. P. Milner, 2001, 『Vegetius: Epitome of Military Science』, Liverpool University Press.
- R. B. Bruce et al, 2008 『Fighting Techniques of the Napoleonic Age 1792 - 1815: Equipment, Combat Skills, and Tactics』, Thomas Dunne Books.
- R. C. Obrecht, 1908, 『Market Classes and Grades of Horse and Mules』, 『Bulletin』 No. 122 University Of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R. Cowan, 2007, 『Roman Battle Tactics 109BC-AD313』, Osprey Publishing.

R. D'amato, A. Negin, 2018, 『Roman Heavy Cavalry (1): Cataphractarii & Clibanarii, 1st Century BC-5th Century AD』, Osprey Publishing.

3. 日 文

鈴木真哉, 2000, 『刀と首取り—戦国合戦異説』, 平凡社新書.

鈴木真哉, 2001, 『謎とき日本合戦史—日本人はどう戦ってきたか』, 講談社現代新書.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tactics of heavy equipped cavalry in the period of ancient Korea

Yang, Seong-min

Heavy equipped cavalry are units with heavy equipments not only armor for riding soldiers but also their horses. Generally, Heavy equipped cavalry are considered to be soldiers who use weapons such as spears and swords to charge into enemy forma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tactics meaning of heavy equipped cavalry in campaign and battles.

The ancient Korean horse is a species of small horse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the Pony. Therefore it is not suitable to play the bearer of a heavy equipped cavalry who equipped a horse armor.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Horses, which were brought from the West, would have played the heavy equipped cavalry. However, even These horses from overseas were bigger than the species of pony, they could not move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weight of armor for them.

The survivability of heavy equipped cavalry with a horse armor was not compared to those of other ordinary cavalries. The psychological pressure it impressed on the enemy was also enormous. These are why heavy equipped cavalry prevailed until the Middle Age's battlefield. But the tactical limitations were also clear. The biggest reason is the weight of the armor on horses. the horse armor provided the horse with strong survivability power, but it is a double-edged sword that prevents the horse from moving at high speed for a long time. The low utilization of heavy equipped cavalry applies not only to the decisive battle but also to campaign situations.

Keywords : Super-heavy Cavalry, Cavalry, Tactics, Goguryeo Tomb-painting, Archaeology, Armor, Horse Armor